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자아 성장 과정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오 현 승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자아 성장 과정

The Self-Growth Process in Pride and Prejudice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전공

오 현 승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자아 성장 과정

지도교수 나 하 엽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오 현 승

오현승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II. 시대적 배경과 결혼관	4
III. <i>Elizabeth</i> 의 자아 성장	10
IV. <i>Darcy</i> 의 자아 성장	25
V. 이상적 결혼상	38
VI. 결 론	40
참고문헌	42

ABSTRACT

The Self-Growth Process in Pride and Prejudice

Hyun-Seung Oh

Advisor: Prof. Ha-Yup Na Ph.D.

Major in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Jane Austen is the author who, despite the dramatic changes occurring in the world at that time, chose not to describe the details of historical and economic events in her novels. The background of her novel is the gentry society as seen through their lives of several families in the countryside of England.

In *Pride and Prejudice*, Austen reflects on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views of marriage at that time. In *Pride and Prejudice*, she points out the error of marriage as a means to gain economic security and social position. In contrast, she shows the importance of affection and respect through the marriage of Elizabeth and Darcy.

According to Austen, in order to achieve a harmonious marriage, a couple should be prepared to go through a painful process of overcoming their social prejudices, Elizabeth has good judgement and intelligence as compared with the other women in the novel. Unfortunately, she is so proud of her ability that she errors when judging a person by first impressions. Her narrowness prevents

her from seeing the world outside of her own and so she does not consider other people's backgrounds. She stubbornly sticks to her mistaken beliefs despite their lack of reason. In the end, however, she recognized the wrongness of her belief in judging persons prematurely. For his part, Mr. Darcy brings with him the pride of his social position and wealth. He is influenced by the patriarchal system and the marriage views of the time and does not try to understand people of different classes. Fortunately, he is broad-minded enough to reflect on himself after Elizabeth's criticism and consequently correct himself.

Through the self-awareness and self-growth process, the two protagonists of *Pride and Prejudice* correct their flawed ideas and attitudes. As a result they become mature and responsible individuals and, in the end, enter into a harmonious marriage based on affection and mutual respect. They make a small sound society for themselves and a sounder world at large. In this marriage we are able to see the advantage of a marriage between two equal and mature individuals, based on affection, not on wealth or social position.

I. 서론

제인 오스틴 (Jane Austen)은 18세기 말에 태어나 19세기에 작품 활동을 했던 영국의 여성 작가이다. 제인 오스틴은 영국소설사에서 최초로 가정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던 작가이며, 그녀의 소설들은 사회적, 도덕적 변화와 결혼과 가족의 문화적 중요성을 최초로 주장한 것들이다.¹⁾

제인 오스틴이 활동하던 시기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기였다. 19세기 초반 유럽에서는 프랑스혁명, 미국독립전쟁,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영국에서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전통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경제력을 가진 중산계급이 급부상한 반면, 상대적으로 지배계급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데서 오는 많은 정치, 경제, 문화적 불안과 혼란에 휩쓸려 있었다. 그러나 제인 오스틴은 대부분의 작품에서 그러한 사회의 변화와 불안정한 모습들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몇 가구 되지 않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의 작품의 주인공들은 신사계급으로 등장하고 그는 당시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의 비판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녀 자신은 자신이 소설을 쓰는 것은 2인치 상아조각에 아주 가는 붓으로 세공을 하는 것과 같다고 밝히고 있다. Tanner는 그녀의 범위는 작지만 젠트리 계층의 사회상을 세밀히 묘사한 점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그녀는 시대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주위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전달할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We know about those two inches of ivory, but since there seem to be people who can inscribe most of the New Testament on a pin's head, and since there have certainly been artists who worked yards of ivory with no residue of interest to engage us, we may say that the question is not one of dimensions but, rather, what did she inscribe on those (metaphorical) two inches of ivory²⁾

1) Julia Prewitt Brown, *Jane Austen's Novels: Social Change an Literary Form*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P, p. 1.

2) Tony Tanner, *Jane Austen* (London: Macmillan, 1986), p. 1.

Barbara Hardy는 오스틴의 작은 범위의 배경이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맥락 안에 존재하는 것이며 사소한 일상사에 대한 분석으로 총체적인 사회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³⁾ 오스틴은 소설 속에서 영국의 시골에 중산계층으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를 통해 당대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오스틴은 작품 속에서 상세한 당대 사회적 상황을 묘사하기를 의도 했던 것이다. 오스틴의 작품들은 가정, 결혼, 이웃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는데 당시의 사회 변화가 이러한 소재들을 통해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오스틴 소설은 영국의 농업, 상업, 공업 등의 분야에서 자본주의가 심화되던 19세기 초의 사회문제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회의 중요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Raymond Williams는 지적한다.⁴⁾ 이렇듯 오스틴은 소설 속에서 역사적이나 사회적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설 속 사건들이 그러한 큰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사회적 맥락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은 두 주인공이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소설이다. 이 소설에는 재산이나 신분 등의 조건으로 인해 왜곡된 인간관계와 결혼 그리고 인간관의 근본적인 고찰과 갈등이 나타나 있다. 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조건들이 언급되는데 그중에서 부와 신분은 최고의 가치이다. 신분은 여전히 계급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이고 부는 당대의 왜곡된 결혼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부는 사회적 변화라는 환경 안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데 그것이 결혼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여성은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은 남편감을 찾고, 남성은 신분이 대등하거나 적당히 낮고 지참금이 많은 아내감을 찾는다.

소설에서는 잘못된 결혼생활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인공들의 자기인식과 성장을 통한 조화로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결혼은 또 다른 사회의 형성이고 올바른 작은 사회는 나아가 전체 사회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⁵⁾ 오스틴은

3) Barbara Hardy, *A Reading of Jane Austen* (London: Athlone P, 1979), p. 104.

4) Raymond Williams, *The English Novel: From Dickens to Lawrence* (London: Chatto & Windus, 1970), p. 19.

5) Tanner, p. 6.

당시의 왜곡된 결혼관을 제시하고 주인공들의 성숙되고 올바른 결혼을 비교해 보여줌으로서 바람직한 결혼의 사회적 필요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바람직한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고통이 따른다. 주인공들은 각각 자신의 모습을 냉철히 점검하고 결합을 반성하고 고침으로서 비로소 성숙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성숙하고 책임 있는 인격체의 결합은 자신들의 행복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지성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들의 판단력에 자만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주인공들은 첫 만남 이후로 오만과 편견을 지니고 있다가 몇 번의 계기로 인해 자신의 내부를 진지하게 응시하며 성찰하게 된다. 그들은 상대방을 통해 반성의 계기를 얻고 자아를 인식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 결혼에 이른다. 그들의 결혼은 당대의 결혼풍조와 다른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한 애정을 갖춘 결혼이다.

II. 시대적 배경과 결혼관

제인 오스틴이 작품 활동을 하던 19세기의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 속에 있었고, 상업 활동으로 재산을 축적한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부상하던 시기였다. 미국의 독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사회 전체로 퍼져가는 시기였다. 영국사회도 이러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었다.

특히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제도의 변화는 지대한 것으로 공업이 발달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돈을 벌어들인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기존의 공고한 계급질서가 서서히 약화 되었다. 여전히 가문과 계급은 중요하였지만, 실제적인 부의 가치가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남성은 더욱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경제활동을 하여 돈을 벌어야만 능력 있는 남성으로 인정받았고, 이로 인한 남녀 역할의 분리는 여성을 더욱 가정 안으로 들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활동을 하며 남성이 벌어들인 돈으로 자녀를 돌보며 생활을 꾸려간다. 여성은 가정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인 면에서 남성에게 의존 하게 되었다. 당연히 여성의 지위는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사회의 결혼관습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따라서 오스틴 소설은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19세기 초의 영국 사회에서 여성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사회적 지위를 갖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결혼뿐이었다.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여성은 경제 활동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여성은 남자 형제에게 의존해야 하고 또한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므로 결혼상대자를 찾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경제적 부와 가문, 지위 등이었다. 특히 이 시대에 결혼상대자의 선택에 작용하는 부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두 인격체가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결혼은 개인의 인격이나 교양은 상관없이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재산의 정도와 가문이나 신분을 보고 이루어졌다. 남성 또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성

의 인격이나 교양을 보기보다 가문과 신분, 그리고 지참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오만과 편견』의 첫 문장에도 이러한 결혼풍속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It is a truth universally acknowledged that a single man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 must be in want of a wife. However little known the feelings or views of such a man may be on his first entering a neighborhood, this truth is so well fixed in the minds of the surrounding families that he is considered as the rightful property of some one or other of their daughters.⁶⁾

재산깨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편적 진리라고 제인 오스틴은 반어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한 남자인 빙리(Bingley)나 다아시(Darcy) 같은 남자들은 결혼할 여성을 선택할 범위가 넓지만, 위컴(Wickham)처럼 재산이 없는 남자는 지참금이 많은 여자를 찾기 위해 애를 쓴다. 여성은 경제적, 사회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돈 많고 지위가 높은 남자를 만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 남성은 유리한 위치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여성은 남성에게 선택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실상 독신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찾는 것이 더 절박하며 사회적 요구나 기대에 순응하는 대응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독신인 여성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결혼뿐이었다. 그러므로 남성의 가치는 인격이나 교양이 아닌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었다.

『오만과 편견』의 앞부분에서 이러한 사회적 통념이 반영되어 있다. 빙리가 네더필드(Netherfield)로 이사를 온다는 소문이 돌고, 사람들은 정작 그를 만나보기도 전에 그가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부터 궁금해 한다. 빙리가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빙리를 향하지만 얼마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아시에게 그 관심은 옮겨간다. 그가 일 년에 1만 파운드의 수입이 있다고들 했

6) Jane Austen, *Pride and Prejudice* (New York: A Bantam Book, 2003), p. 1. 이후의 *Pride and Prejudice*의 인용문은 쪽수만 표시하겠음.

기 때문이다. 1만 파운드의 재산은 그의 외모까지도 빙리 보다 훨씬 더 멋져 보이게 만들었다. 이는 얼마나 그 시대의 부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말해준다.

. . . his friend Mr. Darcy soon drew the attention of the room by his fine, tall person, handsome features, noble mien-and the report which was in general circulation within five minutes after his entrance of his having ten thousand a year. The gentlemen pronounced him to be a fine figure of a man, the ladies declared he was much handsomer than Mr Bingley, and he was looked at with great admiration for about half the evening, . . . (7)

『오만과 편견』은 이 시대의 왜곡된 결혼관을 지적하고 가장 바람직한 결혼인 엘리자베스(Elizabeth)와 다아시의 결혼을 통해 진정으로 성숙한 자아가 만나는 결혼의 중요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에 대비되는 결혼이 바로 콜린스(Collins)와 샬롯(Charlotte)의 결혼이다. 이 둘의 결혼은 당시의 결혼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분별력 없고 비굴한 콜린스는 캐서린 드 버그 부인(Lady Catherine De Bourgh)의 후원으로 갖게 된 목사직과 베넷(Bennet)가에서 상속받게 될 재산으로 자만하지만,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더 많은 자들 앞에서는 머리를 너무나 쉽게 조아리는 속물적인 인물이다.

콜린스는 우연한 기회에 운이 좋게 캐서린 부인으로부터 목사직을 수여받고, 그로 인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는 이제 훌륭한 집과 넉넉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와 재산에 마땅한 여성을 찾으려 하는 속물적인 인물이다. 그에게 있어 결혼 상대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지켜주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리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의 결혼의 조건에는 상대자의 인격이나 교양, 특히 애정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베넷가의 재산을 상속받은 콜린스는 겉으로는 베넷 씨(Mr. Bennet)의 딸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의 토지를 상속받는데 대한 보상이며 일종의 속죄로서 청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매우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그가 청혼하기만 하면 그의 청혼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 콜린스는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기 전에 자신이 결혼을 하려는 이유를 말한다. 여기서 콜린스의 결혼관이 여실히 드러난다.

“My reasons for marrying are, first, that I think it a right thing for every clergyman in easy circumstances (like myself) to set the example of matrimony in his parish. Secondly, that I am convinced it will add very greatly to my happiness; and thirdly, which perhaps I ought to have mentioned earlier, that it is the particular advice and recommendation of the very noble lady whom I have the honour of calling patroness.” (92)

그는 안정된 생활에 있는 목사는 결혼을 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고, 결혼을 하면 자신의 행복이 증진 될 것이며, 자신의 후원자인 캐서린 부인의 충고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청혼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에도 결코 애정이나 결혼상대자의 인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상대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그는 자신의 직위에 도움이 되고, 안정된 생활을 도와주며, 그의 후원자도 만족 시켜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의 성격을 간파한 엘리자베스는 청혼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거절한다. 그런데 콜린스는 그 순간에도 한번쯤 거절하는 것이 여성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라 생각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콜린스의 말속에서 엘리자베스에 대한 애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의 지위와 캐서린 부인과의 관계 같은 조건들만 이야기 하고 있다. 콜린스의 결혼관은 이 시대의 왜곡된 결혼관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결국 콜린스는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거절당하고, 청혼의 대상이 엘리자베스에서 샬롯이 된다. 샬롯은 지위는 있지만 가난한 집안의 딸이다. 게다가 미모도 갖추지 못했고 나이까지 많다. 그 당시의 인기있을만한 신부감은 아닌 것이다. 만약 그녀가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평생 남자 형제의 짐이 될 것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샬롯에게 있어 결혼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회가 와도 꼭 결혼의 기회를 잡아야 했다. 샬롯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거절당한 콜린스가 그녀에게 청혼을 했다고 해도 그녀에게 그것은 반가운 기회였다. 그

녀에게 있어 결혼은 낭만적인 두 사람의 사랑의 결과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위한 도구적인 것이고 그녀가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었다.

Without thinking highly either of men or of matrimony, marriage had always been her object; it was the only honourable provision for well-educated young women of small fortune, and however uncertain of giving happiness, must be their pleasantest preservative from want. (107)

샬롯은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 한다. 그녀는 당연히 그녀의 결혼에 놀라고 반대할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결혼관을 밝힌다.

“... I ask only a comfortable home; and considering Mr. Collins's character, connections, and situation in life, I am convinced that my chance of happiness with him is as fair as most people can boast on entering the marriage state.” (109)

그녀에게 결혼은 가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이다. 결혼상대자가 누가 되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샬롯은 콜린스의 분별없고 우둔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결혼은 그녀에게 있어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했다. 그의 지위와 인맥이나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면 그와 결혼하는 것이 그리 나쁜 전망은 아니었다.

샬롯이 콜린스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녀의 가족에게도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이었고 샬롯의 부모는 매우 기뻐하고 단번에 결혼을 승낙한다. 그녀의 형제, 자매들은 앞으로 일어날 행복에 대해 계산해본다.

루카스(Lucas)경은 샬롯에게 줄 지참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딸의 결혼을 매우 기뻐한다. 샬롯이 콜린스와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베넷가가 살고 있는 집이 콜린스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루카스 부인(Lady Lucas)은 베넷씨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부터 계산해본다. 샬롯의 손아래 여동생들은 사교계에 더 빨리 나가서 더 어린 나이에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남자형제들은 자신들이 샬롯을 부양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기뻐했다. 가족들은 샬롯의 개인적인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 활동에 관한 이득을 생각한다.

오스틴은 샬롯이 콜린스의 우둔하고 속물적인 성격을 잘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결혼을 선택한 것은 그 시대의 결혼관을 그대로 내면화 하였기 때문이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랑을 바탕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택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배경이나 재산을 더 중요시 하는 그 시대의 통념의 수용 결과인 것이다. 오스틴은 샬롯과 콜린스의 결혼을 통해 19세기 영국의 잘못된 결혼관을 비판하고 있다.

Ⅲ. *Elizabeth*의 자아 성장

『오만과 편견』을 통해 제인 오스틴은 주인공들의 자아성장과정을 통해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결과로서의 결혼 자체보다는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자기인식과 그 인식의 변화의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가 당시의 결혼관이나 여성관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와 자기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것이 변화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엘리자베스는 재산이 많지 않은 신사계급의 아버지를 두었고 딸들만 있는 가정의 둘째딸이다. 당시의 다른 여성들과는 달리 엘리자베스는 당당하고 명랑하고 총명한 여성이다. 폭넓은 독서를 통해 교양을 쌓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이야기 한다. 스스로 자신을 ‘성격연구가’라고 칭하고 사람을 만나면 성격을 금세 파악하는 재주가 있는 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의 지성과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행동을 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서슴없이 하고 주위의 시선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빙리의 초대를 받고 빙리의 집으로 간 제인(Jane)이 감기에 걸려 집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언니를 보기 위해 네더필드까지 3마일 거리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간다. 그 시대 보통의 여성들에게 마차나 말을 타지 않고 치마가 흙투성이가 되도록 혼자서 걸어간다는 일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런 엘리자베스의 모습을 보고 빙리 자매들은 조소의 말을 한다.?

Elizabeth, feeling really anxious, was determined to go to her, . . . walking was her only alternative. She declared her resolution.. . .

“No, indeed. I do not wish to avoid the walk. The distance is nothing, when one has a motive; only three miles. I shall be back by dinner.” (26)

오스틴은 엘리자베스를 자신의 모습과 닮은 인물로 설정하여, 가부장적인 사회의 여성적이고 순종적인 다른 여성들과는 다른 새로운 인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 시대의 여성들은 결혼을 위한 교양을 쌓다가 부모가 주는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상대자를 기다린다. 적당한 경제적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청혼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풍조 속에서 오스틴은 엘리자베스를 사회통념에 저항하고 개인의 행복에 대한 욕구에 저항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⁷⁾ 엘리자베스에게 결혼은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단으로서의 결혼이 아니라 애정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행복을 주는 동등한 인격의 결합이다. 그녀는 현실적인 안정이나 사회적 신분을 주는 남성이 아닌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지성이나 감성면에서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남성을 만나고자 한다.

엘리자베스의 이러한 결혼관은 콜린스의 청혼을 받고 거절할 때 잘 나타나 있다. 콜린스는 자신의 청혼을 거절하는 엘리자베스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자신의 외적인 조건을 이야기 한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콜린스에게 자신은 그와 다르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부 감이 아닌 이성을 가진 한 인격체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개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 . . Do not consider me now as an elegant female intending to plague you, but as a rational creature speaking the truth from her heart.” (95)

이렇게 엘리자베스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솔직하게 하는 이성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Gooneratne는 콜린스의 청혼 거절이 단지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 획득의 거부가 아니라, 그녀를 판단하는 사회의 잣대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⁸⁾

엘리자베스는 샬롯과 함께 로징스(Rogings)를 방문하여 캐서린 부인을 만날 때

7) A. Walton Litz, *Jane Austen: A Study of Her Artistic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P, 1965), pp. 84-112.

8) Yasmine Gooneratne, *Jane Austen* (Cambridge UP, 1970), p. 91.

에도 당당하고 대답하다. 그녀는 캐서린 부인을 만나기 전부터 콜린스와 위컴을 통해 그녀의 엄청난 부와 높은 지위에 대해 들어왔다. 그렇지만 로징스에 들어가서도 샐롯은 겁을 먹은 반면,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 그녀의 위엄은 돈과 신분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조금도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lizabeth's courage did not fail her. She had heard nothing of Lady Catherine that spoke her awful from any extraordinary talents or miraculous virtue, and the mere stateliness of money and rank she thought she could witness without trepidation. (139)

또한 캐서린 부인의 위압적이고 거만한 태도를 보고도 엘리자베스는 침착성을 잃지 않고 캐서린 부인을 관찰하기까지 한다. 캐서린 부인은 엘리자베스의 집안이나 교육에 관한 무례한 질문에 대해서도 엘리자베스는 재치 있게 대답을 하며 나이를 묻는 질문에도 여유를 보여준다.

“With three younger sisters grown up,” replied Elizabeth smiling, “your ladyship hardly expect me to own it.” (143)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지성과 판단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그렇다. 엘리자베스는 가족들의 천박함과 무례함을 부끄러워하지만, 한 번도 그것을 고쳐보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과 자신은 별개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엘리자베스의 지성과 판단력은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물과 사건을 잘못 판단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그녀가 메리턴(Meryton)의 무도회에서 다아시를 만날 때부터 시작된다.

무도회에서 혼자 있는 다아시에게 빙리가 엘리자베스를 아름답고 유쾌해 보이는 아가씨라 칭찬하며 그녀와 춤출 것을 권하자 다아시는 그녀가 그를 유혹할 만큼 예쁘지 않다고 하며 다른 남자들에게 무시당한 체면을 세워줄 생각은 없다고

한다.

“She is tolerable; but not handsome enough to tempt me; and I am in no humour at present to give consequence to young ladies who are slighted by other men. . . .” (8)

다아시의 오만한 태도에 엘리자베스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그때부터 다아시는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그가 아주 불쾌하며 끔직한 사람이라고 혹평한다. 엘리자베스는 사람을 파악하는데 지나친 자신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된 것이다. 무도회에 다녀온 후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오만한 태도와 행동에 대해 비판한다. 더욱이 살롯이 다아시의 무례한 태도는 그의 재산이나 배경으로 볼 때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그녀의 편견은 더욱 강해진다.

“His pride,” said Miss Lucas, “does not offend me so much as pride often does, because there is an excuse for it. One cannot wonder that so very fine a young man, with family, fortune, everything in his favour, should think highly of himself. If I may so express it, he has right to be proud.” (15)

엘리자베스의 잘못된 판단력과 자만심은 엘리자베스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한계이다. 엘리자베스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귀족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교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세계 밖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의 예의나 생활양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아시의 행동이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먼저 오만하다고 속단한 것이다.

엘리자베스의 편견은 지속되고 네더필드에서 빙리 양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다아시가 엘리자베스에게 춤을 청하자 장난스럽게 거절한다. 그녀는 그녀의 한계 때문에 다아시가 춤을 청한 의도가 무엇일까 정확히 잡아내지 못한다.

엘리자베스의 다아시에 대한 편견은 위컴으로 인해 더 심해져 간다. 필립 씨 (Mr. Phillip)의 집에서 엘리자베스는 위컴으로부터 다아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챈 위컴은 다아시를 모함하기 시작한다. 다아시와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으며 그의 아버지는 펨벌리(Pemberly)의 관리인이었고 다아시의 아버지의 신임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다아시의 아버지는 위컴을 자식처럼 여겨 목사직을 주기로 유언으로 남겼는데 그 유언을 다아시는 아버지의 위컴에 대한 편애를 질투하여 그 목사직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했다. 위컴은 다아시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오만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모함한다.

엘리자베스는 위컴의 이러한 거짓말을 무비판적으로 분별없이 수용한다. 여기서 엘리자베스의 통찰력의 한계가 드러난다. 엘리자베스는 위컴의 거짓말에 힘입어 자신이 판단한 다아시의 오만함을 확신하고 그에 대한 그녀의 오해와 편견은 더욱 깊어간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첫인상을 보고 그를 판단했듯이 위컴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위컴의 외모에 이끌려 그의 인간성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실패한다.

His appearance was greatly in his favour; he had all the best part of beauty, a fine countenance, a good figure, and very pleasing address. The introduction was followed up on his side by a happy readiness of conversation—a readiness at the same perfectly correct and unassuming; . . . (62)

엘리자베스의 위컴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분별력에 대한 지나친 믿음에서 온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성에 의한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의 진정한 내면을 보는 것에 실패한다. Susan Morgan은 위컴이라는 인물을 엘리자베스의 도덕적 약점을 지적하기 위해 만들어 냈다고 하며 엘리자베스는 세상을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⁹⁾

엘리자베스는 살롯의 결혼에 있어서도 판단의 실수를 한다. 살롯을 자신의 주변

9) Susan Morgan, *"Intelligence in Pride and Prejudice"*, Modern Philology, Vol 73, No. 1, (Cornell UP, 1975), p. 61.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분별 있는 인물로 생각했고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샬롯은 자신에게 청혼을 하고 거절당한 속물적이고 어리석은 콜린스를 단번에 승낙하고, 또한 애정이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그를 선택한 샬롯에게 매우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샬롯이 콜린스의 아내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굴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후 그녀와 거리를 둔다.

Elizabeth was then left to reflect on what she had heard. It was a long time before she became at all reconciled to the idea of so unsuitable a match. . . . She had always felt that Charlotte's opinion of matrimony was not exactly like her own, but she could not have supposed it possible that when called into action, she would have sacrificed every better feeling to worldly advantage. Charlotte the wife of Mr. Collins's was a most humiliating picture!—And to the pang of a friend disgracing herself and sunk in her esteem was added the distressing conviction that it was impossible for that friend to be tolerably happy in the lot she had chosen. (110)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판단에 자신했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심지어 인간 본성에 대한 신념까지 흔들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샬롯의 결혼생활이 불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녀는 제인에게 그녀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실망한다고 말하며 인간의 성격은 건잡을 수 없고 장점이나 분별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도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는 말한다.

“. . . The more I see of the world, the more am I dissatisfied with it; and every day confirms my belief of the inconsistency of all human characters, and of the little dependence that can be placed on the appearance of either merit or sense. I have met with two instances lately; one I will not mention; the other is Charlotte's marriage. It is unaccountable! in every view it is unaccountable!” (117)

샬롯의 결혼 후, 엘리자베스는 샬롯의 초대를 받아 그녀가 살고 있는 헨스포드(Hunsford)를 방문한다.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캐서린 부인의 초대를 받아 간

로징스에서 사촌인 피츠윌리엄 대령(Colonel Fitzwilliam)과 함께 부활절 휴가를 보내러 온 다아시를 다시 만나게 된다. 다아시는 켄트를 방문하여 목사관에 혼자 있는 엘리자베스에게 갑작스런 청혼을 한다.

His sense of her inferiority-of its being a degradation-of the family obstacles which judgement had always opposed to inclination were dwelt on with a warmth which seemed due to the consequence he was wounding, but was very unlikely to recommend his suit. (162)

그는 갑작스럽게 사랑을 고백을 하지만, 곧 그의 청혼은 실패한다. 그의 청혼은 그의 애정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신분에 관한 언급을 하므로 오만하다. 다아시는 감정을 억제 하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며 엘리자베스의 대한 강력한 사랑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는 애정보다는 그의 자존심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자만심이다. 그들의 신분의 차이는 결혼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만 그는 사랑 때문에 그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청혼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결혼에 있어 애정과 상호 존중을 가장 중요시 하는 엘리자베스는 이 청혼을 거절하는 것이 당연했다.

엘리자베스가 살롯처럼 경제적 동기에 의한 결혼을 추구한다면, 청혼의 거절은 일어날 수 없다. 엘리자베스가 콜린스와 다아시의 청혼을 거절하는 것은 실제로 지참금도 거의 없고 베넷 부인이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그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녀의 상황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다.¹⁰⁾ 그녀가 결혼을 거절하는 것은 그녀의 독립적이고 당당한 기질을 보여주는 용감한 행동이며, 당시의 결혼관에 저항하는 대담한 도전이기도 하다.¹¹⁾

엘리자베스가 청혼을 거절한 이유는 다아시가 빙리와 제인의 사이를 방해하여 그들이 결혼할 수 없게 만들었고, 위컴에게 부당하게 대우한 일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오만함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 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다아시의 오만함을 다시 확인하였고, 그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을

10) Lilian Robinson, *Sex, Class and Culture* (Bloomington: Indiana UP, 1978), pp. 178-199.

11) LeRoy W. Smith, *Jane Austen and Drama of woman* (London: MacMillan Press, 1983), p. 87.

신랄하게 한다.

다아시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다아시는 오만하다는 편견은 그녀의 마음속에 너무도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그녀의 주위사람들에게 한 행동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가문의 명예를 먼저 생각해야하는 장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다아시에게 있어 계급이 낮고 더욱이 그것도 지참금도 많지 않은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는 일이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런 어려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무례한 청혼의 방식만을 탓하고 그녀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아시의 청혼과 엘리자베스의 청혼 거절은 그동안 상대방에게 갖고 있었던 감정이나 오해들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하다는 정직함을 장점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게 되며 성숙한 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상대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한 준비 자세를 갖추게 된다.

다아시의 청혼을 거절한 그 다음날,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에게서 한통의 편지를 받게 된다. 다아시는 빙리와 제인의 만남에 대한 생각과 위컴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빙리와 제인의 관계에 있어서 제인이 빙리에 비해 소극적이고 빙리 만큼 애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친구의 행복을 바라는 다아시는 빙리에게 떠날 것을 충고를 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제인의 교양에는 문제가 없지만 엘리자베스의 가족의 천박함과 무례함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위컴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위컴은 스스로 목사직을 포기하고 3천 파운드의 재산을 요구하여 떠났으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돈을 모두 소비하고 다시 목사직에 추천해 달라고 하였다. 다아시는 그 요구를 거절하고 위컴은 다아시를 비난하다가 결국 다아시의 누이동생까지 유혹하여 도망가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였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편지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에 그와 같은 내용을 부정하려 애를 썼지만 시간이 지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객관적으로 지난 일을 반추해 본다. 빙리와 제인과의 관계에도 제인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었고, 위컴에

대해서도 자신이 잘못 생각하였음을 깨달았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판단에 오류와 한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의심 없이 위컴의 말만 믿고 다아시를 증오했던 점을 반성하게 되었다. 자신의 가족의 결함에 대한 다아시의 지적이 굴욕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아시가 말하는 가족의 낮은 신분과 교양은 당시에 결혼하기 좋지 않은 조건임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동안 자신은 가족과 별개라는 의식 속에서 가족의 부족한 교양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불리한 현실을 직시한 엘리자베스는 괴로워하며 자신의 편견과 허영심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된다.

“How despicably have I acted!” she cried. “I, who have prided myself on my discernment!-I, who have valued myself on my abilities! who have often disdained the generous candour of my sister, and gratified my vanity in useless or blameable distrust.-how humiliating is this discovery!-Yet, how just a humiliation!-Had I been in love, I could not have been more wretchedly blind. But vanity, not love, has been my folly. Pleased with the preference of one, and offended by the neglect of the other, on the very beginning of our acquaintance I have courted prepossession and ignorance, and driven reason away, where either were concerned. Till this moment I never knew myself.” 178)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녀의 선입견이 이성을 가로막아 판단을 흐리게 했음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판단이 틀렸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기 인식의 과정이다. 이제 엘리자베스는 한 개인으로서 성숙한 인격을 가질 준비를 하게 된다.

Tanner는 중요한 것은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인지했다는 것이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 자기 인식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n perceiving her own pride and

prejudice - notice she uses both words of herself - Elizabeth can now begin to be free of them. There can be few more important moments in the evolution of a human consciousness than such an act of recognition. There was much in our literature as well as our experience to suggest that the person who never comes to the point of saying, 'I never knew myself' will indeed remain for ever cut off from any self-knowledge - what possible effect there is on his or her vision and conduct need not here be spelt out. If we don't know ourselves, we don't know our world.¹²⁾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계기로 다아시에 오해를 풀지만, 청혼을 후회하거나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심경의 변화를 주는 사건이 생기는데, 가디너(Gardiner) 부부의 여름휴가 중 함께 펨벌리를 방문한 일이다. 엘리자베스에게 펨벌리의 장관을 보며 감탄한다.

It was a large, handsome, stone building, standing well on rising ground, and backed by a ridge of high woody hills; and in front, a stream of some natural importance was swelled into greater, but without any artificial appearance. Its banks were neither formal nor falsely adorned. Elizabeth was delighted. She had never seen a place for which nature had done more, or where natural beauty had been so little counteracted by an awkward taste. They were all of them warm in their admiration; and at that moment she felt that to be mistress of Pemberly might be something! (207)

엘리자베스가 본 펨벌리는 그동안 보았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펨벌리는 로징스와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었다. 펨벌리는 웅장하고 거대한 곳이었지만 건물을 들어가기 전 정원의 아름다움은 다른 곳과는 달랐다. 부자연스러운 꾸밈은 없고 인공이 아닌 천연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펨벌리를 이렇게 꾸며놓은 다아시의 기호를 칭찬하며 마음속으로 자신이 이 펨벌리의 안주인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지금쯤 가디너 부부를 자신이

12) Tanner, p. 113.

안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펨벌리는 엘리자베스에게는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외부의 세계이다. 물질적 부로 이루어진 속물적인 세계라고만 생각했던 로징스와 같은 세계가 있는가 하면 펨벌리같이 물질적 부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속물적이지 않은 자연스럽고 교양이 배어있는 세계도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동안 외부세계에 대해 가졌던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펨벌리는 다아시의 모습과 인품을 상징한다. 펨벌리를 방문함으로써 엘리자베스는 다아시를 이해하게 된다.

펨벌리는 영지를 새롭게 단장하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조경이나 건물에 지나친 장식이나 개량 없이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펨벌리는 변화 속에 전통을 지켜왔다. 펨벌리는 진정한 젠트리의 미덕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다아시의 꾸밈없는 성격과 인품의 반영이다.¹³⁾ 또한 Monaghan은 엘리자베스가 로징스와 펨벌리를 비교함으로써 귀족 계급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¹⁴⁾

엘리자베스는 펨벌리의 외부 모습에 감탄한 것뿐만 아니라 다아시의 가정부인 레이놀즈 부인(Mrs. Reynolds)의 이야기로부터 다아시를 알게 된다. 레이놀즈 부인은 다아시를 “최고의 지주요, 주인이며,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상냥하고 관대하다”고 칭찬한다. 엘리자베스는 그동안 자신이 보았던 다아시의 모습과는 다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아시가 어떤 인물인지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그녀는 저택의 화랑에서 다아시의 초상화를 보고 다아시의 진정한 자아와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 다아시는 초상화를 바라보는 장면은 엘리자베스의 다아시에 대한 이해가 완성되는 시점이고 그녀의 여로의 끝이라고 Tanner는 주장하고 있다.¹⁵⁾ 다아시는 초상화 안에서 엘리자베스가 어디선 본 듯한 미소를 짓고 있다. 그것이 다아시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다.

그러던 중 엘리자베스는 예상보다 일찍 펨벌리에 돌아온 다아시를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 당황한다. 그러나 다아시는 곧 엘리자베스 일행에게 정중하

13) Marilyn Burtler, *Jane Austen and the War of Ideas* (London: Oxford UP, 1975), p. 124

14) David Monaghan, *Jane Austen: Structure and Social Vision* (London: Macmillan Press, 1980), p. 68.

15) Tanner, p. 120.

고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심지어 엘리자베스의 가족들의 안부도 묻는다. 엘리자베스는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의 모습에 놀란다.

엘리자베스는 램턴(Lambton)에 도착한 날 제인으로부터 리디아(Lydia)와 위컴이 도주했다는 편지를 받는다. 충격에 휩싸인 엘리자베스는 마침 방문한 다아시를 만나고 다아시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고 만다. 다아시는 당황하지만 조용히 그녀를 위로한다. 이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

Elizabeth soon observed, and instantly understood it. Her power was sinking; everything must sink under such a proof of family weakness, such an assurance of the deepest disgrace. She could neither wonder nor condemn, but the belief of his self-conquest brought nothing consolatory to her bosom, afforded no palliation of her distress. It was, on the contrary, exactly calculated to make her understand her own wishes; and never had she so honestly felt that she could have loved him as now, when all love must be vain. (235)

그녀는 지금 다아시가 말했던 가족의 결함이 눈앞에 드러났고, 그런 그의 앞에서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녀는 더 이상 다아시에게 매력을 줄 수 없었고, 둘의 관계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리디아와 위컴의 도주는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를 가깝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다아시는 즉시 런던으로 가 위컴과 리디아를 찾아내고, 위컴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 다아시는 또한 자신의 돈으로 그들을 결혼시키지만 이 모든 일을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엘리자베스는 수치스러운 사실을 다아시에게 말했던 것을 후회한다. 그녀는 다아시의 호의가 아쉬워졌고, 그의 소식을 듣고 싶어졌다. 또한 그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She began now to comprehend that he was exactly the man who, in disposition and talents, would most suit her. His understanding and temper, though unlike her own, would have answered all her wishes. It was an union that must have been to the advantage of both-by her

ease and liveliness, his mind might have been softened, his manners improved; and from his judgment, information and knowledge of the world, she must have received benefit of greater importance.

But no such happy marriage could now teach the admiring multitude what connubial felicity really was. An union of different tendency, and precluding the possibility of the other, was soon to be formed in their family.(266)

엘리자베스는 청혼을 거절 한 것을 후회했고, 이제야 진정 다아시야 말로 자신에게 맞는 상대자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리고 각자의 장점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엘리자베스의 여유 있고 쾌활한 모습은 다아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것이고 태도를 개선시킬 것이며, 다아시의 판단력과 세상에 관한 지식은 엘리자베스에게 귀중한 이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기회는 사라졌고 엘리자베스는 다아시가 승리감마저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다아시와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캐서린 부인은 늦은 밤에 갑자기 엘리자베스를 찾아온다. 그녀는 엘리자베스 집안의 낮은 신분과 재산을 언급하면서 다아시와 자신의 딸은 어릴 때부터 정혼한 사이일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결혼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그녀는 결혼이란 개인의 결합이 아닌 가문의 결합이므로 다아시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베넷 집안을 무시하고 무례를 범한다. 그녀는 결혼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가문이나 사회적 지위에 맞지 않는 결혼이라고 하는 캐서린 부인의 말 뒤에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엘리자베스는 결혼이 당사자들에 달려있다고 하고 다아시가 자신을 선택한다면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엘리자베스에게 캐서린 부인은 계속하여 그들은 귀족혈통이고 많은 재산에 대해 언급하며 결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엘리자베스는 신분에 관해 말하자면 자신도 신사의 딸이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말한다.

“In marrying your nephew, I should not consider myself as quitting

that sphere. He is a gentleman; I am a gentleman's daughter; so far we are equal." (306)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신분에 상관없이 결혼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약혼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하는 캐서린 부인에게 엘리자베스는 약속할 수 없다고 한다. 자신은 스스로 행복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한다. 엘리자베스는 누구의 압력이나 사회의 구속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당당하고 독립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다아시가 롱본(Longbourn)을 다시 방문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와 둘만 있게 되자, 진심으로 리디아의 일에 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자 뜻밖에도 다아시는 엘리자베스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말하고 청혼을 한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도 그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한다는 표현까지 하게 된다. 두 사람은 그들의 관계의 발전에 캐서린 부인의 역할이 역설적으로 작용한 사실을 인식한다.

Elizabeth feeling all the more than common awkwardness and anxiety of his situation now forced herself to speak; and immediately, though not very fluently, gave him to understand that her sentiments had undergone so material a change, since the period to which he alluded, as to make her receive with gratitude and pleasure his present assurances. (315)

그 후, 다아시는 청혼을 하기 위해 베넷 맥을 방문한다. 베넷 씨는 딸이 오만하다며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근심스러운 얼굴로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와 결혼을 하려는 이유가 그의 재산이냐고 물었을 때,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아버지를 설득시킨다.

Elizabeth, still more affected, was earnest and solemn in her reply; and at length, by repeated assurances that Mr. Darcy was really the object of her choice, by explaining the gradual change which her estimation of him had undergone, relating her absolute certainty that his affection was not the work of a day, but had stood the test of

many months suspense, and enumerating with energy all his good qualities, she did conquer her father's incredulity, and reconcile him to the match. (324)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펨벌리를 방문 하도록 하여 다아시의 진면모를 보게 하였고 그들의 결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가디너부부에게 미웠던 답장을 쓴다. 그녀는 편지에서 결혼 소식을 전하며 자신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

“. . . I am the happiest creature in the world. Perhaps other people have said so before, but not one with such justice. I am happier even than Jane; she only smiles, I laugh. Mr. Darcy sends you all the love in the world that he can spare from me. You are all to come to Pemberly at Christmas. Yours, etc.” (329)

엘리자베스는 심지어 자신이 제인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며 제인은 미소만 짓지만 자신은 소리내어 웃는다고 한다. 애정으로 이루어진 결혼을 하는 제인과 빙리보다 애정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경을 바탕으로 결혼하는 엘리자베스와 다아시가 더 행복한 것이다. 제인오스틴은 바람직한 결혼의 의미를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통해 보여준다.

인간의 정신을 축소시키고 물질주의적인 사회에 내재하는 속물근성과 비인간성을 인정하면서 소설의 첫 문장이 담고 있는 냉소적인 “진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와 함께 사회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타협의 정도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적어도 엘리자베스와 같은 여자에게는 독자적이고 활력에 찬 삶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IV. *Darcy*의 자아 성장

다아시는 젠트리 중에서도 상류 젠트리 계급의 유서 깊은 가문의 장자이다. 그는 일 년에 1만 파운드의 수입을 올리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펄벌리의 주인이다. 그는 차가워 보이는 외모를 가졌지만, 그가 거느리는 하인들에게 관대하고 아량 있는 인물이며 존경을 받고 있다. 그를 4살 때부터 보아온 가정부 레이놀즈 부인로부터 그를 최고의 지주요, 주인이라는 칭송을 받는다.

그러나 당시의 가부장적이고 계급중심적인 사회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다아시는 자신과 비슷한 계급의 사람들은 존중하지만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사람들과 융화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고 교양이 없다는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다아시는 자신의 부와 지위로 인해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어디를 가도 다아시는 주목을 받고 사람들은 호의를 베풀지 못해 안달이었다.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성격의 그가 사교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태도에 대해 비판을 받기 전까지 어떠한 비판을 받아 보지 못하였고 오만한 태도를 고칠 생각 또한 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가진 계급과 신분이라는 외형적 가치와 내면적 가치를 동일시하는 잘못을 하여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생각한다.¹⁶⁾

다아시의 몸에 밴 오만함은 소설의 첫 부분에 그가 메리턴에 등장했을 때 잘 나타난다. 메리턴의 무도회에 다아시는 빙리와 함께 나타나는데 빙리는 사교적이고 상냥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만 다아시는 그와 달리 형식적이고 거만하다는 평을 얻는다. 다아시는 무도회장의 사람들을 조그만 시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며 교양이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교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춤을 추지 않고 있는 다아시에게 빙리는 춤을 추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하자 잘 알지 못하는 여성과 춤을 추는 것은 자신에게 고통이라고 한다. Chandler의 지적처럼 다아시는 수줍어하고 비사교적인 성격

16) Butler, p. 206.

을 타고나 사교계에서 부자연스럽고 억압되어있는 남자일 수도 있다.¹⁷⁾

그러나 다아시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지닌 펨벌리를 벗어날 때는 사람들에게서 오만하고 기분 나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것은 다아시의 본질적인 특성인 탓도 있지만, 다아시는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귀족계급의 교육을 받은 영향이 더 크다. 다아시는 자신의 영지 이외의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작품의 초반에 빙리가 다아시에게 그의 앞에 있는 엘리자베스에게 춤을 청하라고 할 때, 그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She is tolerable; but not handsome enough to tempt me; and I am in no humour at present to give consequence to young ladies who are slighted by other men . . .” (8)

다아시의 말에서 이 시대에 여성의 가치 평가의 기준에 미모도 포함되며 다아시는 이러한 사회적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아시에게 엘리자베스는 그의 관심을 끌만한 미모를 갖추지 못한 평범한 시골여성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다아시는 루카스경 댁에서 열린 무도회에서 루카스경이 춤은 사교계의 가장 훌륭한 관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춤은 야만인들도 출 수 있다는 무례한 대답을 한다.

“. . . it has the advantage also of being in vogue amongst the less polished societies of the world. Every savage can dance.” (20)

다아시는 계급으로부터 오는 오만에 찬 인물로 그려지며, 계급질서의 붕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아시는 엘리자베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생긴다. 루카스경이 엘리자베스에게 춤을 청하라고 하자 다아시는 그렇게 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17) Alice Chandler, "A Pair of Fine Eyes: Jane Austen's Treatment of Sex." Harold Bloom. Ed. *Jane Austen: Modern Critical Views* (New York: Dhesea House Publishers, 1986), p. 34.

는 이 순간에도 재치 있게 거절한다. 다아시는 평소에 자신이 춤을 청하면 당연히 승낙했던 다른 여성들과 엘리자베스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도전적인 태도에 호의를 갖고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묻는 빙리양에게 엘리자베스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 한다.

“Your conjecture is totally wrong, I assure you. My mind are more agreeably engaged. I have been meditating on the very great pleasure which a pair of fine eyes in the face of a pretty woman can bestow.”
(21)

다아시는 엘리자베스를 아름다운 두 눈을 가진 예쁜 여자라고 생각한다. 다아시는 또한 검은 눈을 가진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 경쾌하고 기분 좋은 맵시, 자연스럽고 명랑한 품위에 끌렸던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다아시는 엘리자베스를 좀 더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¹⁸⁾

. . . Elizabeth was far from suspecting that she was herself becoming an object of some interest in the eyes of his friend. Mr. Darcy had at first scarcely allowed her to be pretty; he had looked at her only to criticize. But no sooner had he made it clear to himself and his friends that she had hardly a good feature in her face, than he began to find it was rendered uncommonly intelligent by the beautiful expression of her dark eyes. To this discovery succeeded some others equally mortifying. Though he had detected with a critical eye more than one failure of perfect symmetry in her form, he was forced to acknowledge her figure to be light and pleasing; and in spite of his asserting that her manners were not those of the fashionable world, he was caught by their easy playfulness. (18)

엘리자베스는 제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언니를 간호하

18) Mary Poovey, *The Proper Lady and the Woman Writer: Ideology as Style in the Works of Mary Wollstonecraft, Mary Shelly, and Jane Auste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 70.

러 3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네더필드로 간다. 그런 모습을 보고 빙리 자매들은 엘리자베스의 빗질도 하지 않은 머리와 흙투성이인 치마에 대해 험담을 한다. 빙리양은 다아시의 동의를 바라지만, 다아시는 그녀가 운동으로 빛난다며 칭찬을 한다.

. . . observed Miss Bingley, in a half whisper, "that this adventure has rather affected your admiration of her fine eyes."

"Not at all," he replied; "they were brightened by the exercise."

(29)

이는 그가 그녀에게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엘리자베스가 머무르는 동안 그의 관심은 계속된다. 다아시의 관심은 더욱 커져가지만 사랑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결혼상대자나 교제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다아시가 그동안 만나온 여자들과 다르게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한다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거절을 할 수 있는 여성이었다. 다아시 주변의 여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에 다아시는 호기심을 가졌고,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Darcy had never been so bewitched by any woman as he was by her. He really believed that were it not for the inferiority of her connections he should be in some danger. (44)

엘리자베스의 낮은 신분 때문에 다아시는 그녀를 결혼상대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며칠 후 엘리자베스가 제인과 집에 돌아갈 계획을 세우지만 더 머물라는 주인덕택에 회복할 때 까지 있게 된다. 다아시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

다아시는 엘리자베스에게 계속 눈길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가 그것을 의식하여 우쭐대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무관심한척한다. 그는 하루 종일 말도 열 마디만 했고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당시의

전통적인 결혼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Lawrence Stone에 따르면 17세기 말 중산계급으로부터 시작되어 상층계급까지 애정결혼의 풍조가 퍼지고 있었으며, 18세기에는 보편화되었다고 한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아시는 전통을 지키려는 귀족계급의 남성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결혼을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아시의 결혼관은 상대자와의 애정이나 지성, 교양보다는 가문이나 신분을 우선 조건으로 하고 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신사계급인 아버지가 있지만, 런던의 칩사이드(Cheapside)의 상업에 종사하고 메리턴에서 변호사를 하는 중산계급의 친척들이 있다. 또한 그녀는 교양이 없는 어머니와 캐서린(Catherine)과 리디아처럼 천박한 여동생들이 있다. 그래서 빙리 자매들이 엘리자베스의 신분에 험담할 때, 빙리는 친척들의 계급이 두 자매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하지만, 다아시는 그런 친척들 때문에 지위 있는 남자와 결혼할 가망은 줄어든다고 대답한다.

"If they had uncles enough to fill all Cheapside," cried Bingley, "it would not make them one jot less agreeable."

"But it must very materially lessen their chance of marrying men of any consideration in the world." replied Darcy. (30)

다아시는 부활절 휴가를 보내기 위해 사촌 피츠윌리엄 대령과 함께 이모인 캐서린 부인이 살고 있는 로징스를 방문한다. 이때 살롯이 사는 켄트(Kent)의 헨스포드(Hunsford)에 머무르던 엘리자베스가 캐서린 부인의 초대를 받고 오자 둘은 로징스에서 다시 만난다. 다아시는 신분차이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민하다 마침내 청혼을 한다. 다아시는 엘리자베스가 그를 사회적 지위나 재산 등 어떤 조건으로 봐도 거절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청혼을 하기 전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는지 알지 못한다. Jan Fergus는 다아시가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독자들은 보다 우호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²⁰⁾

19) Lawrence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Harper, 1976), pp. 414-428.

로징스에 와서 다아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기 전 엄청난 심적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아시는 특별한 교제를 위해서 목사관에 오는 것도 아니었고, 와 있는 동안에도 필요에 의해서만, 예의 상 마지못해 말을 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의 얼굴은 생기를 띠어 본 적이 없었다.

But why Mr. Darcy came so often to the parsonage it was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It could not be for society, as he frequently sat there ten minutes together without opening his lips; and when he did speak, it seemed the effect of necessity rather than of choice—a sacrifice to propriety, not a pleasure to himself. He seldom appeared really animated. (155)

또한 다아시는 엘리자베스가 공원을 산책하는 동안에도 우연히 그것도 몇 번씩이나 나타난다. 서로 마주칠 때마다 그는 평소에 하지 않던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엘리자베스가 다시 켄트에 올 때 로징스도 방문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을 했다.

More than once did Elizabeth in her ramble within the park unexpectedly meet Mr. Darcy. She felt all the perverseness of the mischance that should bring him where no one else was brought; and to prevent its ever happening again, took care to inform him at first that it was a favourite haunt of hers. How it could occur a second time therefore was very odd! Yet it did, and even a third. It seemed like wilful ill nature, or a voluntary penance, for on these occasions . . . and that in speaking of Rogings and her not perfectly understanding the house he seemed to expect that whenever she came into Kent again she would be staying there too. His words seemed to imply it. (156)

또한 다아시가 목사관에 와서 샬롯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

20) Jan Fergus, *Jane Austen and the Didactic Novel* (Totowa, N. J.: Barnes & Noble Books, 1983), p. 111.

기 다아시는 엘리자베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만, 이내 의자를 뒤로하고 신문을 들며 냉정한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 한다.

이것은 다아시가 엘리자베스와 사이의 사회적 거리를 넘어야 할지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¹⁾ 이 때, 사회적 거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거리도 존재 한다. 다아시가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한다는 것은 유서 깊은 가문의 장자인 다아시의 명예를 포기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아시와 같은 신분의 위치에 있는 남성이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하는 것은 하층계급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다아시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데 대한 캐서린 부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²²⁾ 캐서린 부인은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와 결혼을 한다면 그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다아시는 고민 끝에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한다.

“In vain, I struggled. It will not do. My feelings will not be repressed. You must allow me to tell you how ardently I admire and love you.” (162)

다아시의 말에서 그가 얼마나 고민을 하며 마음속으로 투쟁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드러낸다. 그러나 그는 놀라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보고 이내 자신의 자존심과 높은 신분에 대해 말한다.

He spoke well, but there were feelings besides those of the heart to be detailed, and he was not more eloquent on the subject of tenderness than of pride. His sense of her inferiority-of its being a degradation-of the family obstacles which judgement had always opposed to inclination were dwelt on with a warmth which seemed due to the consequence he was wounding, but was very unlikely to recommend his suit. (162)

21) Tanner, p. 129

22) F.M.L Thompson, *English Landed Society: In the Nineteenth Centu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3), p. 19.

다아시는 엘리자베스에게 그녀의 낮은 신분에 대해 말하고 그녀와 결혼을 하는 것은 자신의 지체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신분의 차이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고 하며 그의 높은 신분을 언급한다. 이것은 다아시가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으며, 아직도 오만하며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결국 그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의 애정에 관해 이야기하기보다 가문의 장애, 높은 신분을 들어 그녀를 설득하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녀를 분노하게 한다.

그럼에도 다아시는 엘리자베스의 승낙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그의 청혼을 거절하자 다아시 또한 엘리자베스의 거절에 분노를 느꼈고 얼굴은 창백해지기까지 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동안 다아시의 오만함에 대한 감정과 제인의 행복을 파괴하고 위컴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던 일 때문에 생긴 감정들을 이야기한다. 화가 난 다아시는 끝내 자신의 신분에 대한 오만함을 보이며 엘리자베스의 낮은 신분을 지적한다.

“. . . Could you expect me to rejoice in the inferiority of your connections? To congratulate myself on the hope of relations whose condition in my life is so decidedly beneath my own?” (165)

다아시는 자신의 신분과 엘리자베스의 신분으로 볼 때 자신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아시는 청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존심만 고려했을 뿐, 엘리자베스의 자존심이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신분만 보고 엘리자베스가 당연히 청혼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그것에 분노한다. 그는 결혼이 신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결혼을 지향해야 하고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다.

다아시는 엘리자베스의 충고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두 장의 뻑뻑한 편지를 쓴다. 엘리자베스가 오해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해명을 솔직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로징스를 떠난다.

그리고 가디너 부부와 함께 여행 중 방문한 엘리자베스를 펴벌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둘 다 너무나 놀랐지만 확실히 다아시는 달라져 있었다. 그의 달라진 태도가 엘리자베스를 더욱 당황하게 하였다.

Amazed at the alternation in his manner since they last parted, every sentence that he uttered was increasing her embarrassment; and every idea of the impropriety of her being found there, recurring to her mind the few minutes in which they continued together, were some of the most uncomfortable of her life. Nor did he seem much more at ease; when he spoke, his accent had none of its usual sedateness; and he repeated his inquiries as to the time of her having left Longbourn, and of her stay in Derbyshire, so often and in so hurried a way as plainly spoke the distraction of his thoughts.

At length, every idea seemed to fail him; and after standing a few moments without saying a word, he suddenly recollected himself, and took leave. (213)

그가 변했다는 것은 느낀 것은 그의 인물됨을 칭찬한 가디너 부부뿐만이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러한 변화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And his behaviour, so strikingly altered-what could it mean? That he should even speak to her was amazing!-but to speak with such civility, to inquire after her family! Never in her life had she seen his manners so little dignified, never had he spoken with such gentleness as on this unexpected meeting. What a contrast did it offer to his last address in Rogings Park, when he put his letter into her hand! She knew not what to think, nor how to account for it! (214)

그는 침착성을 잃었지만 그가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또한 그녀의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다. 그의 태도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매우 대조적이었고 상냥하였다. 그리고 개울가에서 가디너 씨가 시간을 지체하고 있을 때, 다아시가 다시 그들에게 왔다. 그리고 일행을 소개해달라고 한다.

Mrs. Gardiner was standing a little behind; and on her pausing, he asked her if she would do him the honour of introducing him to her friends. This was a stroke of civility for which she was quite unprepared; and she could hardly suppress a smile at his being now seeking the acquaintance of some of those very people against whom his pride had revolted in his offer to herself. “What will be his surprise,” thought she, “when he knows who they are! He takes them now for people of fashion.” (216)

다아시는 그가 낮은 계급의 친척들이라고 무시했던 그 친척들을 만나자 조금 놀라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태도로 그들을 대한다. 다아시는 가디너씨에게 낚시도구를 빌려줄 테니 와서 낚시를 하라고 정중하게 초대하기도 한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달라진 모습에 매우 놀랐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다아시는 칩사이드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엘리자베스의 친척의 사회적 신분과 직업에 대해 부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다아시의 편견을 바로잡는데 한 역할을 맡는다.²³⁾ 가디너 씨는 다아시가 갖고 있던 편견에 치우친 예상과는 매우 다른 인물로 지식과 취미와 말솜씨에 있어서도 돋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다아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누이동생을 소개시켜주려 한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최고의 경의의 표시였다. 그리고 가디너 씨 부부는 다아시를 더할 나위 없이 몸가짐이 훌륭하고 겸손하다고 칭찬한다. 실제로 엘리자베스도 그의 얼굴에서 온화함과 친절을 발견한다.

It was not often that she could turn her eyes on Mr. Darcy himself; but whenever she did catch a glimpse, she saw an expression of general complaisance, . . . (222)

다아시는 달라진 태도로 엘리자베스의 친척들을 만찬에 초대 하는 등의 호의를

23) W. J. Fitzpatrick, *Jane's Pride and Prejudice* (New York: Monarch Press, 1964), p. 69.

보인 것으로 볼 때 아직도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했다. 빙리양이 엘리자베스의 외모에 대해 험담을 할 때에 다아시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엘리자베스가 주위 사람들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

“but that was only when I first knew her, for it is many months since I have considered her as one of the handsomest women of my acquaintance.” (230)

램턴(Lambton)에서 엘리자베스는 제인으로부터 리디아와 위컴의 도주를 알리는 편지를 받는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읽고 충격에 휩싸인다. 마침 바로 그때 다아시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다아시는 매우 놀랐지만 매우 공손한 태도로 엘리자베스를 위로한다. 다아시는 그가 그렇게 혐오하던 위컴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에 대한 애정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는 리디아와 위컴을 직접 찾아내서 위컴의 천 파운드가 넘는 부채를 갚아주고 결혼식도 올려주고 장교로 격상시켜 주는 등 엘리자베스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면서도 엘리자베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다아시는 명예가 실추된 베넷가를 구해내는 헌신적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리디아와 위컴의 도주와 결혼은 다아시에게 그녀에 대한 사랑과 그의 인격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는 경멸했던 사람을 그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수치스러운 그녀의 가족들을 수용하고 포용함으로서 그의 성숙한 자아를 보여준다. Gooneratne는 소설의 구조 안에서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와의 결혼의 희망을 불길하게 했던 상황에서 결국 그가 그녀로부터 감사와 사랑을 얻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²⁴⁾

리디아와 위컴의 결혼이 마무리 된 후, 다아시는 두 번째 청혼을 한다. 다아시는 그동안 사색의 과정을 거쳐 그가 한 잘못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다아시는 엘리자베스의 비판을 수용하고 고통스러운 자기반성을 하는데 수개월

24) Gooneratne, p. 98.

이 걸렸음을 고백한다. 편지에 대한 대화를 하고 나쁜 기억은 다 잊어버리자고 하는 엘리자베스에게 다아시는 자신의 오만한 성격이 형성된 성장 배경을 이야기한다.

다아시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기적인 인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성격을 고치라는 충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외아들로 태어나 부모님은 선하신 분들이었지만 그의 오만한 태도를 나무라지도 않고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로 자랐다. 자신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천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은 계속되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성격의 결함을 지적하고 자신을 깨달음의 과정에 이르게 하는 훌륭한 교훈을 준 인물이었다. 그는 자기인식과 성장을 거쳐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다.

그들은 첫 번째 청혼 당시를 회상한다. 다아시는 진심으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며 자신이 허영심을 갖고 있었지만, 펄벌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녀를 대했다.

“My object then,” replied Darcy, “was to you by every civility in my power that I was not so mean as to resent the past; and I hoped to obtain your forgiveness, to lessen your ill opinion, by letting you see that your reproofs had been attended to. How soon any other wishes introduced themselves I can hardly tell, but I believe in about half an hour after I had seen you.” (318)

다아시는 엘리자베스를 다시 만나게 되자, 엘리자베스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의를 지키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엘리자베스가 비난했던 점을 고쳤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한다.

엘리자베스는 청혼을 수락한 후에 다아시에게 무엇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냐고 물었다. 다아시는 엘리자베스의 활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아시는 신분, 지위, 재산 등이 아닌 개인의 자질을 결혼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Tanner는 엘리자베스가 결혼할 때 가져가는 것이 지참금이나 신분이 아닌 그녀의 활력, 명랑한 기질이라는 정신적 자산이라고 주장한다.²⁵⁾ 마침내 다아시는 계급적인 속물근성

을 버리고 엘리자베스의 개인적 장점의 중요성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25) Tanner, pp. 135-136.

V. 이상적 결혼상

다아시와 엘리자베스는 각자 충분한 자아성장 과정을 거쳐 뽀뽀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조화로운 세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세계는 오만한 남성과 편견을 가진 여성이 각자의 결함있는 자아를 인식하고 성장시켜 결혼을 통해 이룬 결과이다. 이들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풍요롭고 조화로운 세계를 이루게 된다.

다아시와 엘리자베스는 각자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들은 오만과 편견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서로에게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정직함으로 기존의 기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결혼에 이르게 된다. 재산과 신분같은 외적인 요소를 결혼의 조건으로 보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결혼과는 다르게 그들은 결혼상대자의 인격과 기질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애정을 가장 큰 결혼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특질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엘리자베스의 명랑하고 쾌활한 기질은 다아시의 경직되고 수줍은 성격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엘리자베스의 지성과 당당한 용기는 여성은 미모를 갖추는데 힘써야하며 여성의 교육은 더 나은 조건의 남성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이루어 진다는 다아시의 잘못된 여성관을 개선하게 한다. 또한 다아시의 신중한 판단력과 넓은 견문은 엘리자베스가 제한된 배경으로 인해 판단력의 자신감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 이러한 평등하고 상호 존경을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관계는 바람직한 새로운 세계를 형성한다.

그리하여 다아시의 여동생 조지아나(Georgiana)는 부부의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인해 바람직한 새로운 세계에 알게 된다.

Georgiana had the highest opinion in the world of Elizabeth; though at first she often listened with an astonishment bordering on alarm at her lively, sportive manner of talking to her brother. He, who had always inspired in herself a respect which almost overcame her affection, she now saw the object of open pleasantry. Her mind received knowledge which had never before fallen in her way. By Elizabeth's instructions

she began to comprehend that a woman may take liberties with her husband, which a brother will not always allow in a sister more than ten years younger than himself. (333)

조지아나는 엘리자베스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었고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등한 관계가 조화로운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다. 조지아나는 다아시와 같은 경직되고 관습적인 계급의식을 지닌 사람들과 교류 해왔다. 그러나 오빠의 변화를 눈으로 보게 되며 변화의 가능성을 인식한다. 인간사이, 특히 결혼에 이르는 남녀 관계에서 조화롭고 행복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계급이나 신분이 아닌 개인의 인격의 존중과 사랑이다.

오스틴은 이 소설에서 사랑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결혼을 그리고자 하였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주인공은 자신들의 태도와 성격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는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 태도와 가치관을 사회에 순응시켜 나간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성장배경과 환경을 갖고 있고 가치관과 태도가 매우 달랐지만,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이해심, 재평가, 자기 재인식, 그리고 자기수정의 과정을 거치고 훌륭한 판단력과 예의가 더해져 결혼에 이른다. 마침내,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조화로운 상태의 세계로 통합되는 것이다. 그들의 성장과 결혼은 조지아나에게 보여 지듯, 개인의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오스틴은 이 소설을 통해 이상적인 결혼상을 제시 하고자 한 것이다.

VI. 결 론

2003년 BBS에서 “영국에서 가장 사랑 받는 소설” (UK's Best-Loved Books)을 뽑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 『반지의 제왕』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런 결과는 오스틴의 소설이 갖고 있는 여러 문학적 장점 가운데서도 영원히 그 가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개인의 내면적 성장, 그리고 사랑과 결혼에 관련된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의 대상인 그 주제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오스틴이 이 소설에서 표명한 왜곡된 결혼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아성장을 통한 바람직한 결혼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역사적 변화의 시기에 작품 활동을 한 오스틴은 사회적, 역사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가정이라는 좁은 범위 안에서 결혼을 주제로 사회를 묘사하려 하였다. 당시의 전통적인 결혼관을 보여주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들이 각각의 자아에 대한 지적을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자아를 스스로 성찰하는 자아 성장 과정을 살펴보았다. 오스틴은 소설을 통해 독립된 자아가 동등하게 성장하여 이루는 결혼이야말로 가치 있는 결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만과 편견』의 두 주인공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는 주변의 평범한 인물들과는 조금 다르다. 그들은 스스로의 지성과 판단에 대해 자신하며 그들의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엘리자베스는 남편감을 찾기 위한 교육이 아닌 지성을 쌓기 위한 폭넓은 독서를 하며 다른 여성들보다는 올바른 지성과 교양이 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때에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행한다. 엘리자베스는 지참금도 얼마 주어지지 않을 가난한 신사집안의 딸이다. 그녀는 그러한 배경으로 재산과 지위가 있는 남편을 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혼을 꿈꾸지 않고 친구인 샬롯이 경제적 이유로 분별없고 우둔한 콜린스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비난한다. 그녀는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적 자질을 결혼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녀에게 사회적 관습은 중요하지 않고 인격을 갖춘 남녀가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결혼을 원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판단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행동함으로서 다른 사람의 진

실한 내면을 보지 못한다. 그녀는 그녀 바깥의 다른 세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알고자 노력을 하지 않는다.

다아시는 가문으로부터 전통적인 교육을 받아온 장자이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재산으로부터 오만함을 가지고 있으며 가부장적인 사상을 가지고 여성을 판단한다. 그는 당시의 관습적인 결혼관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결점을 지적받아본 적이 없으며 엘리자베스를 비난에 충격을 받는다.

엘리자베스는 그녀 밖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의 제한을 극복하고, 다아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자신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반성한다. 다아시는 그의 오만한 성격을 고치려 노력한다. 그는 그가 가진 계급적 인간관을 타파하고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게 된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의 성격과 태도의 결점을 발견하고 오랜 시간 반성의 과정을 거치며 성장한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상호존중과 애정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들은 결혼하여 펴벌리에서 하나의 조화로운 작은 세계를 형성한다. 오스틴은 두 주인공들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애정 있는 결혼이 바람직함을 보여주려 하였다. 조화로운 결혼은 성숙된 자아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성숙된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격과 태도 가치관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겪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한 걸음이기도 하다. 오스틴은 물질적인 면을 강조하는 결혼풍속과 가부장제에서 기인한 여성관을 비판하며 결혼 당사자의 개인의 자질의 존중과 인격의 성숙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결혼을 통한 더 나은 모습의 세계를 지향하였다. 제인 오스틴은 기존질서에 동화하는 구성 속에서 주요 인물들의 내적 성장에 주목하고, 그러한 인물을 창조함으로써 소설 속의 인간묘사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다.

Bibliography

1. Text

Austen, Jane. *Pride and Prejudice*. Bantam, 2003.

2. References

Brown, Julia Prewitt. *Jane Austen's Novels: Social Change and Literary Form*. Cambridge Massachusetts and England: Harvard UP, 1979.

Butler, Marilyn. *Jane Austen and the War of Idea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Chandler, Alice. "A Pair of Fine Eyes: Jane Austen's Treatment of Sex," *Jane Austen: Modern Critical Views*. ed. Harold Bloom New York: Dheasa House Publishers, 1986.

Fergus, Jan. *Jane Austen and the Didactic Novel*. Totowa, N. J.: Barnes & Noble Books, 1983.

Fitzpatrick, W. J. *Jane's Pride and Prejudice*. New York: Monarch Press, 1964.

Gooneratne, Yasmine. *Jane Aust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Hardy, Barbara. *A Reading of Jane Austen*. London: Athlone Press, 1979.

Litz, A. Walton. *Jane Austen: A Study of Her Artistic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Monaghan, David. *Jane Austen: Structure and Social Vision*. London: Macmillan Press, 1980.

Morgan, Susan. "Intelligence in *Pride and Prejudice*," *Modern Philology*, Vol 73, No. 1, Cornell University Press, 1975.

Poovey, Mary. *The Proper Lady and the Woman Writer: Ideology as Style in the*

Works of Mary Wollstonecraft, Mary Shelly, and Jane Austen.
Chicago University Press, 1984.

Robinson, Lilian. *Sex, Class and Cult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8.

Smith, LeRoy W. *Jane Austen and Drama of Woman*, London: Macmillan Press,
1983.

Stone, Lawrenc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Harper, 1976.

Tanner, Tony. *Jane Austen*. London: Macmillan Education, 1986.

Thompson, F.M.L. *English Landed Society: In the Nineteenth Centu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3.

Williams, Raymond. *The English Novel: From Dickens to Lawrence*. London: Chatto
& Windus, 1970.

김희선. 『오만과 편견』. 서울: 평민사, 2001

영미문학연구회. 『영미문학의 길잡이1: 영국문학』.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오화섭. 『오만과 편견』. 서울: 범우사. 2007.